

심초지구 새뜰마을 준공 자축

순창군, 산간오지 상수도 공급·주거환경 개선·복합문화센터 신축·행복마을로 탈바꿈

순창군이 2016년부터 시작한 심초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을 지난해 12월 말 완료하고, 자축행사를 가졌다.

군은 지난 8일 지부실 복합문화센터에서 황숙주 순창군수와 정성균 군의회위원장, 최영일 전북도의원, 전계수 군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새뜰마을사업 관계자, 주민, 향우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뜰마을사업 준공기념 자축행사를 가졌다.

심초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최기수)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내빈소개, 국민의례, 경과보고, 새뜰마을사업 동영상 시청, 감

사패 전달, 환영사, 축사, 기념촬영, 마을견학,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새뜰마을 사업은 인계면 심초마을의 슬레이트 지붕개량과 집수리, 빈집철거, 재래식화장실·경관저해시설정비, 복합문화센터 등을 신축했다.

또 지방상수도 관로매설과 마을급수공사, 노후교량 재가설, 군내버스승강장 보수,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했다.

황숙주 군수는 "지난 2016년부터 3년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기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관이 합심해 열정적으로 추진한 결과, 오늘과 같은 결실을 맺었다"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

차원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기수 위원장은 "철첩산중 산간오지 심초마을이 폐촌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모든 것이 새롭게 정비돼 마을에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며 "마을내 빈집을 재생시켜 출향인 유턴, 도시민 인구유입 촉진에 힘써 대대손순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사업대상지의 일반현황, 사업추진배경, 새뜰마을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각 단계별 추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준공백서와 사업전·후 마을의 변화된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사진첩도 발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춘향제·춘향선발대회 참가자 신청... 25일까지 접수

남원 춘향제추진위원회(위원장 안숙선)는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남원 광한루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89회 춘향제의 춘향선발대회 참가신청을 8일부터 3월 25일까지 접수 받는다.

응모자격은 지역 제한 없이 1996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출생한 고등학교 재학 이상인 사람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JTV전주방송 홈페이지(www.jtv.co.kr) 또는 춘향제 홈페이지(www.chunhyang.org)에서 응모원서를 내려 받아 3월 25일까지 JTV 전주방송에 제출하면 되며, 서류심사 결과는 3월 27일 JTV전주방송 홈페이지와 춘향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춘향제의 백미이자 핵심 행사인 춘향선발대회는 배우 오정혜, 이다해, 박지영, 장신영 등과 같은 대스타를



배출하였으며, 한국 고유의 전통미를 상징하는 전국 규모의 선발대회로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재능, 윤리의식, 가치관 등 내면적인 요소가 중요한 선발기준이 되는 차별화된 행사이다. 한편, 선발된 춘향들은 춘향제 기간 동안 축제장 일원에서 관광객들과 춘향제를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남원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지속적으로 남원시와 춘향 홍보에 참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치유농업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보고회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승)는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치유농업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노홍래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부서장, 치유농업 관련 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용역보고서에는 총 사업비 99억원이 투입되는 치유농업테마공원 조성을

주요 골자로, 나눔농장과 키움농장, 희망농장 등 4개 테마를 갖춘 농장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4개 테마로 조성할 예정인 각 농장들은, 치유를 주된 테마로 하여 각각 동물교감, 식물교감, 농작업교감, 음식교감 등 현재 트렌드에 맞게 구성될 예정이다.

노홍래 부군수는 "치유농업테마공원



조성을 지역 소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한편 치유농업 1번지 순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경로당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100% 보급

남원시가 연인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3월말까지 총 사업비 9억원 을 들여 경로당 490곳에 공기 청정기 980대(100%)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기청정기 설치를 희망하는 어린이 집 50개소에 1억원을 들여 공기청정기 221대를 보급한바 있으며, 어린이 집 공기청정기 설치에 폐연 예정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않은 9개소를 제

외하면 100% 설치되었고, 지역아동센터 23개소에도 시비 3,100만원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노경희 여상 가족과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우선 보급,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이나경 무엇이 나를 기다리시지를 개최한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기획전시회

'이나경 무엇이 나를 기다리시지' 4월 10일까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2019년 첫 전시로 '예술편력:이나경 무엇이 나를 기다리시지'를 9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최한다.

'편력(編歷)'은 여러 분야를 경험한다는 의미로서, 다양한 장르를 경험하고 축적하면서 예술의 본질에 다가가는 작가들을 소개하는 시리즈 전시로, 올해 첫 번째 작가로 화가이자 섬유미술 설치 작가이며 무대미술 감독인 이나경의 다채로운 작품 80여점을 선보인다.

이나경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국내 주요 미술관 전시 외에 오사카, 시라예보 등 해외에서도 활동하였으며, 현

재 남원시 대강면의 폐교를 매입해 작업실로 바꾸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전연료로 연색과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나경 작가가 직접 뽑아낸 전연료로 물들인 천과 종이 는 그녀의 손을 거쳐 그림의 바탕이 되기도 하고, 무대 의상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미술관 관계자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올해도 볼거리 많은 기획전시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진행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남원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임실=김기두 기자



임실군은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나섰다.

임실군,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 첫걸음

임실군은 영농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감소농 교육대상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개강식을 가졌다.

감소농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중점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일방적인 농가 지원사업이나 교육에서 벗어나 농가 스스로의 자립역량을 강화토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이날 교육은 감소농 교육사업의 추진방향, 8년간 감소농의 발자취, 그리

고 감소농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홍성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감소농 교육생들이 강대농으로 발전하여 임실군의 농업이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마케팅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 교육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역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노년기 올바른

정신건강증진 도모

임실군보건요원은 최근 노인 자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정신건강교육은 3월까지 지역 경로당 22개소를 순회하며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해 노년기 올바른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교육은 경로당 이용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 우울, 자살 문제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행복한 노후에 대한 강의로 참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노인 우울 척도 검사를 실시해 '우울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노인에게 대해서는 1:1 전문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및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진 보건요원은 "노년기 우울증을 방치할 경우 신체질환 악화, 인지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자살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강진면행복보장협의체

올해 첫 정기회의 개최

임실군 강진면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서성석, 강준희)는 지난 8일 강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강진면행복보장협의체 운영계획수립, 특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논의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작년에는 저소득가구 긴급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행복나눔배달부 외 2건의 특화사업을 추진해 독거노인, 청장년층세대에 소외감 해소 및 복지욕구를 해결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파수꾼이었다. 올해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민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인 서성석면장은 "강진면행복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 발굴 뿐 아니라 촘촘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